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4호 【루게 제23321호】주제100(2011)년 1월 4일(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설

당의 부름따라 인민생활항상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치자

희망의 해, 새로운 번영의 해인 주제 100(2011)년을 맞이한 선군조선에 《승리의 길》의 노래소리가 이 땅을 진감하며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당보, 군보, 청년보의 공동사설을 받아안고 새해전야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오중홍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명사단의 훈령을 보아주신 소식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이 끓어올라 솟아오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온 나라에 사회주의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 수 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릴 수 있다.》

우리 당은 올해 공동사설에서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항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게 더욱 세차게 지켜올려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어머니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기념성년축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시라는 것이 올해 공동사설의 기본정신이다.

우리는 새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받들고 다시한번 드세한 총공격전을 벌려 오늘의 대고조에서 한이어 최후의 승리를 안아와야 한다.

공동사설은 인민생활대고조의 승리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한 신심과 락관이 맥박치는 투쟁의 기치이다.

지난해에 이 땅에서는 모든것을 인민생활항상으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따라 전인민적인 총공세가 힘있게 벌어졌다. 경공업과 화학공업, 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관련된 부문들에서 혼령을 보아주신 소식에 접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담대한 배짱과 기세가 세차게 맥박치고 있다.

승리에 자만을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보다 큰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전후무한 백승의 명도자,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강성대국건설을 가장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략은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군민을 대고조전군으로 불러일으키는 장군님의 명도예술은 참으로 비범하고 명활하다. 정세가 매우 첨예하고 난관이 겹쌓였던 지난해에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변혁이 이룩된 것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

의 진리를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의 심장마다에는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력사의 리정표를 따라 드림없이 전진하리라는 신념이 역척같이 뿌리내려 있다.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투쟁과업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한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담대한 배짱과 기세가 세차게 맥박치고 있다.

승리에 자만을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보다 큰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전후무한 백승의 명도자,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강성대국건설을 가장 경애하는 장군님의 전략은 가장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군민을 대고조전군으로 불러일으키는 장군님의 명도예술은 참으로 비범하고 명활하다. 정세가 매우 첨예하고 난관이 겹쌓였던 지난해에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변혁이 이룩된 것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

공동사설은 현시기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 정책적과업들이 집대성되어있는 전투적기치이다. 공동사설을 깊이 학습하여 그 정신과 내용을 완히 깨는 사람만이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사업을 힘있게 조직전진해나갈 수 있다.

공동사설의 구상과 의도는 무조건 현실로 전진되어야 한다는 고결한 총정을 지니고 결사관철해나가는 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려는 비상한 혁명적격으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도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사업을 힘있게 조직전진해나갈 수 있다.

공동사설의 구상과 의도는 무조건 현실로 전진되어야 한다는 고결한 총정을 지니고 결사관철해나가는 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려는 비상한 혁명적격으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도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사업을 힘있게 조직전진해나갈 수 있다.

김철로동계급처럼 투쟁하고 창조할 때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은 우리 당이 제시한 시간표대로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는 무조건 현실로 전진되어야 한다는 고결한 총정을 지니고 결사관철해나가는 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려는 비상한 혁명적격으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도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사업을 힘있게 조직전진해나갈 수 있다.

공동사설의 구상과 의도는 무조건 현실로 전진되어야 한다는 고결한 총정을 지니고 결사관철해나가는 것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려는 비상한 혁명적격으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여도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사업을 힘있게 조직전진해나갈 수 있다.

리는 이미 이룩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는 것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내세워주고 대중적기술혁신 운동을 적극 벌이며 첨단과학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올해에 인민생활항상대진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려면 당, 근로단체 조직들과 인민들의 조직동원적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이 인민생활항상대진군을 앞장에서 이끄는 데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당 및 정경기관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설하신 인민생활항상대진군을 앞장에서 이끄는 데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당 및 정경기관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설하신 인민생활항상대진군을 앞장에서 이끄는 데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실천가, 당에서 준 과업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성실하게, 가장 진솔하게, 가장 완벽하게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어야 한다. 3월 5일청년광산의 일군들처럼 전망목표를 높이 세우고 방법론있게 모든것을 작전하여 자기 단위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오늘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당 및 정경기관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설하신 인민생활항상대진군을 앞장에서 이끄는 데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당조직들이 인민생활항상대진군을 앞장에서 이끄는 데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당 및 정경기관 일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설하신 인민생활항상대진군을 앞장에서 이끄는 데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에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항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평양 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3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팔강은 우리 당의 위대한 인민생활전략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여 통성변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을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산물림, 총공세의 산물림을 힘차게 울려갈 혁명적열정을 안고 모여온 수도의 10만여명 군중들로 차고 넘쳐 있었다.

대회장 한가운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 있었다.

대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모두다 인민생활항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생산물려로!》, 《김철의 호소 따라 다시한번 혁명적대고조에!》 등의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 있었다.

최영림동지, 양형섭동지, 홍성형동지, 태중수동지, 문경덕동지와 리태남, 김락희, 내각부총리들,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당, 행정경제기관, 대학의 책임일꾼들, 로력영웅,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섰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보장하며 원군기공을 높이 발양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모든 일꾼들은 인민생활대고조와 생산물려의 성과가 자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정책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실천가, 불철투사가 되어 자기 부문, 단위의 사업을 부단히 혁신해나가는 활력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이 건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낭독된 다음 결의 토론들이 있었다.

로동계급을 대표하여 토론한 평양일용품공장 지배인 김영남은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항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새해 공동사설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의 신심의 피를 뿜게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전투적 호소와 김철의 편지에 호응하여 수도의 로동계급이 생산물려에 총집중함으로써 인민소비품생산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인민소비품생산에 당을 만드는 자세, 인민에 대한 태도와 직결된 중대한 정치적문제에 대해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하여 올해에 맡겨진 계획을 지료별로 수행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제품의 가치수를 높이고 질을 높여 모든 소비품들이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호영을 받는 인민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상품으로 되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 본사기자 강정민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하루빨리 앞당겨 나가야 합니다.》

보고자는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에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모든 전진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활력이 될 비상한 각오를 가지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원료원천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강릉지구관할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등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단위들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경공업혁명의 불길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밑거름이 될 비상한 각오를 가지

고 석탄과 전력, 원료들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세우며 균중토전을 철저히 관철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사건들을 다그치고 거리와 마을, 일리틀 위생문화적으로 꾸러 평양시를 보다 아름답고

문명한 도시로 만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수도의 모든 당조직들이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정신을 받들고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균중토전을 철저히 관철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대중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당의 선군혁명론을 튼튼히 틀어쥐고 국방공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국유적으로

주체공업의 위용떨치며 비약의 한길로!

김철의 로동계급을 대교조의 선봉에 내세워준 위대한 령도

대교조의 앞장에서 비약의 큰걸음을 내딛은 김철의 로동계급이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가 맥박치는 새해공동사업을 받아안고 산악같이 일떠섰다.

혁명적대교조의 선봉에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철성산성으로 보답하자! 믿음의 대교조진군에서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전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자!

바로 이것이 새해전군위에 들어선 김철로동계급의 심장속에서 울려오는 신념의 웨침이다.

승리의 신심드높이 새해 첫 전투부터 대교조의 불길속을 세계까지 지퍼 울리고있는 김철로동계급의 가슴속에는 지난해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속에 대교조의 선봉에서 힘차게 전진하여 온 잊지 못할 나날들이 뜨겁게 되새겨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전환국면이 열리고있는 지금 김철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큼다. 기업소의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다시고다쳐온 불굴의 전진력을 총폭발시켜 대교조의 전진에서 계속 질풍같이 내달려야 함이다.》

지난해 정초 케년에 없는 강우위가 북방의 대지를 휩쓸었지만 김철의 전투장들마다에서는 혁명적대교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습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면서 바깥세상 구내 길을 걸으며 새해전투의 불길을 지켜주시는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일떠선 김철로동계급이었다.

야외에 설치된 설비들과 정장수송반, 드넓은 기우소구배에 그늘처럼 뻗어나간 무한 배관들과 주유관들이 사정없이 열어드는 겨울철조건에서 철성산을 정상화한다

것은 말할 필요 없이 아니었다. 하지만 김철의 로동계급은 추위가 물러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 지도부에 철성산과 관련한 야외설비들과 배관들을 정상가동시키기 위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간고한 투쟁끝에 용광로에 불을 지피고 첫 쇠물을 부어냈을 때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눈물을 뜨겁게 적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렀다. 김철에서 변혁의 첫 물결과가 열리었던 것이다.

그들은 양양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대지를 휩쓰는 엄숙한 강우위 속에서 철강재산을 위한 무관한 공격전을 벌여 지난해 1월 생산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새해 첫 전투에서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보고받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 어린 친절을 보내주시는데 이어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아직은 첫걸음을 떼며 불완전한 자기들의 자기마한 성과도 소중히 여기시고 거듭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김철의 로동계급은 비약의 열풍을 일으키며 철강재생에서 혁성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러던 지난해 3월 대교조의 기상 나레지는 철의 기지에 다시금 격정의 파도가 일기었다.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끄시며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 시한 위대한 장군님께서 또다시 김철을 찾아주시었던 것이다.

새해 첫 전투부터 철강재생에서 기적을 창조한 커다란 자랑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일터에 모신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은 크나큰 감격과 기쁨으로 설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철의 로동계급이 당의 전투적소속

높이 받들고 대중적영웅주의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여 년초부터 매월 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전국에 호소문을 보낸 김철의 로동계급이다. 그리고 거듭 높이 평가해주셨다.

김철의 로동계급을 새해전투의 선봉에 내세워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격을 붙여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르며 이곳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그들의 헌성은 은정에 눈시울을 적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날 생산현황회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기업소의 여러 생산공정용 오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점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김철의 로동계급이 철강재생에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셨다.

강철 2직장에 들리시어서는 우리 식으로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조종되는 현대적인 원로식 편속조끼기에서 위엄없이 쏟아져 나오는 강철들을 보아주시며 생산자들의 투쟁을 따오시 고추해주시고 열간압연직장에 들리시어는 작업공정의 온도를 가늠해보시어는 온조치도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열간재출한성직장에 또 들리시어는 그이께서는 드넓은 적제장에 가득 들어찬 각종 규격의 압연강판무지들을 보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제 는 기업소의 활성회피기 시작할것만들 철강재생의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한 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김철의 철강재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초산입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반기생산공정의 현대화, CNC화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고 계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아직은 당면한 철강재생계획에

대하여서만 생각하고있던 이곳 일꾼들에게 전반기생산공정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할데 대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시 위대한 장군님.

정명 우리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김철이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 해주신 자립적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활력있게 전진해나가고특히 겨울철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자애로운 스승의 손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저지도는 북방의 철의 기지에 대교조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였다.

용광로의 출생구에서 쇠물을 뽑아내는 용해공만이 아닌 기업소의 전체 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끓어오르는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새해전투에서 이룩한 자기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 해주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려는 충정의 마음이었다.

불의 대화가 쉬임없이 흐르는 철의 기지에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레지는 속에 기업소에서는 1월과 2월에 이어 철성산에서 연속 장풍을 불었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당면한 철강재생산을 다그치면서 주체철성산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도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갔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주조가 간단하고 원단위소비기준이 확실히 나오면서 생산성이 높은 우리 식의 새로운 주체철성산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이 펼쳐졌다.

초기조각과 건축공사, 방대한 설비제작과 조립을 다그치기 위한 전투가 전기기술적인 편속용에 립 체적으로 벌여져 주체철성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혁신성과가 이룩되었다.

우리 식의 주체철성산체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 마련.

당장전 65톤을 맞으며 년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 전반기생산공정의 기술개진을 다그쳐 생산을 무려 2.7배로 장성...

바로 이것이 지난해 김철이 일떠서는 때, 김철이 일을 치는 해로 만들었다는것을 당과 인민앞에 엄숙히 맹세한 김철의 로동계급이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과이다.

우리와 만난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꾼 리철훈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두해전 12월 우리 기업소에 찾아오시기 전만 하여도 저희들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변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김철로동계급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을 기업소에서 생산활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한 기적의 원천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철체철원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철의 로동계급이 당이 안겨준 믿음을 안고 대교조의 앞장에서 승리의 영예를 떨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대교조진군의 길에서 계속 질풍같이 내달릴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또다시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속에 더욱 세차게 타오르는 김철의 불길, 김철로동계급이 건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지금 은 나라를 끝없이 격동시키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장들마다에서 끊이지 않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 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 나라의 생명선을 지켜선 김철의 로동계급은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철로 당장앞에서 승리를 울리고 나라의 경제건설에 크게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전봉을 빛내며 온해의 대교조진군에서도 더욱 승리의 영예를 떨쳤습니다.

《올해의 총진군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담보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배방으로 높이는것이이다.》라는 새해공동사업의 구절이 어찌하여 사람들의 가슴을 그리도록 세차게 격동시키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로동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건적문제입니다.》

위대한 당의 향도의 빛바래 밟아오는 강성대국의 찬란한 태양을 마중해가는 격동적인 이 시각 우리의 심장은 지난해에 있던 당대표자회 정선으로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불라는 결의로 충만되어있다.

당대표자회정선,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을 변함없이 옹위해 나가려는 일심단결의 정신이고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 통성변명하는 강군을 건설하자는 불굴의 강행군정신이며 위대한 당을 받들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려는 계속혁명의 정신이다. 필승의 신념, 철성의 의지, 무진막강한 위력을 분출시키는 그 위대한 정신으로 하여 우리는 벌써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이한 2012년에 터져올 강성대국건설의 불바라를 보고있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강화하는데 혁명의 승리가 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영방스러운 백승의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우리 어찌 잊을수 있으랴. 1970년대 중엽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던 때에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것을 심화시켜 내 나라, 내 조국의 승평정진을 담보하기 위한 김철로동직계의 불멸의 업적.

주체 63 (1974)년 4월,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데 대한 력사적인 연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수령의 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해 나가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대를 이어 계속해 나감으로써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합니다. ...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연설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길을 열어놓는 강령적지침이었다.

어찌 그뿐이랴. 주체 67 (1978)년 12월과 주체 68 (1979)년 4월에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움에 대하여》를 발표하신데 이어 1980년대에는 《전당에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세우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이시다.

그러면 엄혹하였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이 후추의 담보도 없이 오히려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할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혁명적 건설이 있었을 수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확립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그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리키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철성같은 신념으로 깊이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이거니 최후승리를 눈앞에 둔 논들의 격동적인 시각에 어찌 그들의 가슴이 필승의 신심과 락판으로 세차게 울려일지 않을수 있으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올후에 기여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성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만마련방 국가평화발전리사회 위원장에 계 축전을 보내였다

네이궤도

만마련방 국가평화발전리사회 위원장
대장 탄 스웨 각하

나는 만마련방 63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 100 (2011)년 1월 3일 평양

1 면에서 계속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지역경쟁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원료와 자재를 우리의것으로 해결하며 현대화를 최첨단수준에서 실현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당의 사상과 의도를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실천가, 열혈투사가 되어 올해생산결전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친배배해진 전체 로동계급의 전투력을 남김없이 파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토론한 사동구역 리현남재전물동농장 관리위원장 정영숙은 새해농동사업을 받아안은 수도의 농업근로자들은 김철로동계급의 편지에 호응하여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 결의에 충만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농업전선을 인민생활물체해결의 생명선으로 내세운 공동사업에는 농업생산은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큰 문제를,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가 맥박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 앞장선 본보기단위들처럼 우량종종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두벌 수확면적을 늘리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신진농법과 기술을 도입하여 정보당수확고를 높일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평양시의 농사에서 기본은 남새 농사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이미 마련된 분수식판수식물들을 만가꾸는것은 한편 남새는 실건시설을 다그치고 비배관리를 알맞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들 더 많은 남새가 차체지게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축산은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농촌문화발전과 공공건물들을 더 잘 꾸며 농장을 선진시대사회주의무로동현으로 전면시건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영광의 땅에서 일하는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

은광삼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에서 위대성교양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집행해나감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두고 있다.

이와 함께 초급일꾼들이 선군정치의 독창성, 정당성, 생활력에 대한 자료들을 깊이 학습하고 대중적으로 들어가 독보와 해설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얼마전 쇠물생산으로 늘어난 생산현황에 나간 한 일꾼은 팜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작업의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친 항일혁명투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르려한다. -삼지연대기념비에서 본사기자 찍음

당의 령도밑에 승승장구하는 주체의 사회주의

《승리의 길》의 노래소리높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작전 포성을 힘차게 울리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을 발표하신 1996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 81 (1992)년 1월 3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힌 기념비적문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회주의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한 위업이며 인물이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당시 일파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근본인인과 주체사상을 기초한 우리 식 사회주의승리의 필연성을 뚜렷이 명시하였다. 로작의 구절구절마다에는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총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성의 의지가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강성대국을 향하여 폭풍처럼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바친 현실을 통하여 지난 10여년간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켜 오시며 이 땅에서 강성민국의 력사적전변을 안아 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필경하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사상장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는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며 사상은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의 사상

철학을 통하여 천만민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시며 우리 식 사회주의 승리의 길로 령도하여오시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상사업의 앞세우려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앞설수없다》를 비롯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상리론적지침들이 환히 밝혀져있다. 우리 당창당사업의 내용을 철두철미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일관시키고 도처에 혁명전동요구, 계급교양의 거점을 훌륭히 꾸리도록 하시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력을 최대로 높이고있는 우리 장군님이다.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여 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사육은 당창당사업의 전초병들이 삼지연대기념비의 《건국의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끄신데도 잊어 오고 모든 당조직들과 일꾼들이 혁명의 총풍기가 되어 대중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대교조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도록 하시는데 어려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날의 인민생활향상대진군에서 《승리의 길》의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지도록 하신것은 천만민들의 무한한 사상정신력을 철성의 의지가 힘있게 맥박치고있다. 우리 당의 혁명적 위업에 대한 투쟁은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려는 우리 당의 드림같은 의지의 파사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혁명의 주체는 비상이 강화발전되었다. 지난해에 진행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것은 혁명의 수뇌부를 근본적으로 하는 우리 혁명대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대한 뚜렷한 믿음으로 된다. 인민군대가 기둥이 되고 혁명대오전반이 강군화, 정제화되어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력전전진군을 창조해나가고있는것은 선군조선의 참모습이다. 위대한 선군, 기치밑에 혁명의 수뇌부와 일심단결, 사회주의가 운명공동체를 이룬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창창하다.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사회주의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시어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나가지게 되었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구현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

할 근본원칙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시며 수령님들의 위력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높이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시켜나감에 힘써주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인민대중에서 창조된 혁명적 권정정신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정신으로 내세우시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굳건한 선군정신, 선군기질, 선군분노로 살며 투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선군정치방

공동사설에서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는 본보기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총공격전의 발구름소리 높이 울리며

1월의 협동법에 총공격전의 발구름소리 힘차게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의 정신은 농장이라고 하시며 찾으신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과 서해기슭의 통천군 신암, 제평군 삼지강협동농장이며 중간지대와 동해안지역 농사의 본보기단위들인 태천군 은룡, 함주군 동봉협동농장 등 그 어느 농장에 가보아도 좋다.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최고 수확년도를 돌파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맹세를 안고 새해농사차비전투의 앞장에 선 본보기단위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모습은 얼마나 미더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사를 잘 지어야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습니다.》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새해농사차비전투장.

시주변 오수정화장은 농사차비에 펼쳐나선 미곡리사람들로 벌써 활기 넘쳤다. 두렵게 얼어붙은 정화장강물을 정제와 폭행이로 꺼내는 농장원들, 꺼낸

각지 농촌의 본보기단위 일군들과 농장원들

강랑덩어리들을 트랙트에 연방 울려 퍼지는 농장원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굴착기가 울음 쓰며 정화장강물을 파올랐다. 흰 김을 문문 피워 울리며 굴착기까지에 척척 감겨드는 꺼먼 강물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였다.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동사설을 격조속에 받아안고 오늘 하루동안에만도 수신의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한 우리들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이 어떤 우리 농장원을 기쁘게 해주어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겠습니다.》

마미다에서 청춘의 열정이 넘쳐흐르는 청년작업반장의 말이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청년들이 힘있게 틀어쥔 장대머 곡병이마다에서 불꽃이 날리었다. 질 좋은 거름을 산을 이루었다. 새해가 시작되기에 모관자재며 중수농기구, 흙비료비료준비를 원만히 끝내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힘을 집중하고있는 미곡리사람들의 일면은 주변농장사람들을 놀라웠다.

태천군 은룡협동농장 흙갈이 전투장에서도 노래 (승리의

길)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이 깃든 트랙트의 운전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흙을 운반하는 운전수들의 얼굴마다에는 새해 농사차비에서 혁신자의 영예떨칠 신심이 넘쳐났다. 그들의 가슴속에서 울려 퍼지는 보답의 맹세는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위훈을 향해 하였다.

— 토지정리로 천지개벽한 땅,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자욱이 깊게 새겨진 한드레벨을 기쁨으로 걸으며 세세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속에 흙을 산더미처럼 실은 트랙트들이 연방 포전에 들어섰고 트랙트들이 포전에 도착하자마자 농장원들이 와닥 와닥 부리었다. 새해 첫날전투에서 1정보의 논에 1천의 흙갈이를 진행!

이 실적을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아안고 새해농사차비에 펼쳐나선 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높을지 보여 주었다. 아버지 수령님의 천지지도 사적이 깃들여있는 농장인것만 농사 잘 지어야 한다시며 경애하는 장군님 찾고 또 찾아 주신 통천군 신암협동농장에서

수만 t의 유기질비료 운반

인민생활대교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퍼 울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펼쳐나선 연백별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 지원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농업전선을 지켜선 금지안고 분발해나선 배천, 연안, 청안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동차와 트랙트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운반수단들을 집중하여 거름실어내기에 힘쓰고 있다.

《농부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야 합니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의 해에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높은 목표를 제기한 일군들은 새해 첫 전투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였다.

본사기자 김 향 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식량문제를 기어이 풀겠다는 혁명적각오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아버지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명예농장으로 모신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의 제3작업반 거름실어내 전투장이다.

노래 (승리의 길)과 함께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고 첫 전투에 한사탕같이 펼쳐나선 작업반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공동사설과업관철에 부르는 구호와 나뉘는 붉은기름, 발동소리 울리며 거름차레 달리는 트랙트들, 신심이 넘쳐 거름을 지고 내달리는 농장원들...

1월의 찬바람은 순간에 모든것을 얼어버릴듯 차고 맴뎠다. 하지만 전투장은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대교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울려 썰며 미를 높이 쌓아내는 이들의 뜨거운 열기로 하여 불도가마나 당 쪼아버린다.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선 전투원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거름을 낼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거름질통을 질척 뜨거워 입김을 확확 내뿜으며 하는 작업반장 장철산동무의 말이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거름을 실은 트랙트와 달구지들이 연방 포전으로 들어

우리는 짧은 시간도 아까워 적체함을 뛰어올라 결이대질을 걸싸게 해내는 트랙트운전수들이 김영남, 박성철동무들... 이노는 한개 포전의 거름실어내기가 끝나고 다른 포전에서 전투가 시작된다.

— 3분초에서 하루계획 140%제정 돌파!

현장수보반의 주먹잡은 글발들이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뿜어부리는 애국의 불정을 더욱더 분출시킨다.

《이 기세로 나가면 150%는 문제없습니다.》

작업반장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또 한대의 트랙트가 거름을 실고 달려온다. 작업반장이 정해진 위치에 가서 트랙트가 벗어나서 농장원들이 적체함을 뛰어올라 거름을 부리운다. 잠깐사이 또 하나의 거름더미가 생겨난다.

본보기단위들의 모범을 따라 배워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이들의 열의는 뜨겁다.

시간이 흐를수록 혁신의 기상 넘치는 농장원들이 《알려미》들이 더욱 높아진다.

본사기자 문 길 수

첫날전투과제 넘쳐 수행

정주트랙트부속품공장에서

이 새해전투에 들어간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첫날전투실적을 지난해 같은 때보다 1.6배로 높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첫 전투에 들어간 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은 농사차비를 다그치고있는 협동법에 더 많은 부속품을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힘찬 투쟁의 불길을 지퍼울리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일터마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울려 생산에 필요한 공구와 지구를 새로 갖추도록 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생산의 첫 공정에 당당한 주물공장을 생산하고있다.

제 1, 2공장조직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다. 이들은 기계관리를 알뜰하게 하면서 각종 수속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고원군 승천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논밭 정보당 수신의 유기질비료를 낼 목표에 헌신하고있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공동사설의 정신을 깊이 해설해 주면서 그들의 열의를 불리고 펼쳐나선 작업반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울리었다. 부림소관리 사람들은 부림소관리에 힘을 넣으며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해 놓을 유리한 조건에 맞게 실어내기에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제 3, 4작업반원들이 유기질비료를 실어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있다. 작업반초급

일군들은 포전들까지의 거름을 구제적으로 타산하여 작업조직을 립틈없이 함으로써 모두가 높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고있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알곡생산은 높이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펼쳐나선 작업반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울리었다. 부림소관리 사람들은 부림소관리에 힘을 넣으며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해 놓을 유리한 조건에 맞게 실어내기에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보다 높은 유기질비료를 포전에 실어내고있다.

본사기자 서 승 호

대교조전투에 부르는 전투적기치

인민생활대교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 울려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의 해—주제 100 (2011)년의 대교조전투 나팔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새해공동사설을 무한한 격조속에 받아안은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농업전선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울릴 열정으로 불타오라 내며 끓어넘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농업문제는 혁명적 건설의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

전반적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강령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에도 사리원시 미곡, 통천군 삼지강협동농장을 비롯한 농촌현장을 찾으시어 농업전선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공전선이라고 하시면서 농업전선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공동사설에서는 농업전선은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고 지적하였다.

신군의 불길속에서 다지고 다져는 불길의 정신력과 생산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켜 농업전선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키자. 이것이 새해의 첫 기세에 선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맹세이다.

우리 농업부문 일군들은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혁명을 철저히 관철하고 유기농업을 비롯한 선진농업방법과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전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작전을 대담하게 펼쳐나갔다.

높은 전력생산성으로

새해공동사설을 피워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우리 전력공업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전력생산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비약을 일으킬 신심과 결의를 충만하여왔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배두의 붉은기름을 높이 쭈켜들고 총진군해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고 보다 행복찬 미래를 안아올 수 있다. 겨울은 투쟁의 길을 자랑스럽게 뚫어놓으며 새해의 전진군에 나선 우리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결사관철의 정신과 결연한 의지로 펼쳐나가는

농업상 리 경 식

선군청년전위의 위력을 남김없이

청년동맹중앙위원회에서는 모든 청년동맹사업에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조하여 조직적이며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차고들어 청년들을 수목적사용의 전위투사들로 키워나갔다.

특히 청년동맹창립 65돐을 맞는 올해 동맹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청년동맹을 당의 평도밀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위력한 전위조직으로, 혁명적 구실이 확립되고 생기발랄한 청년조직으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청년동맹조직과 강서구역 청년동맹조직 청년작업반을 청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새해농사차비에 한사탕같이 펼쳐나갔다. —태천군 오수정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새해농사차비에 한사탕같이 펼쳐나갔다. —태천군 오수정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지금 우리 전체 청년들은

《청년들은 우리 당과 사상도 뜻도 정도 같이하는 새 시대 선군혁명동지들이 되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의 두리에 철철 같이 뭉치며 당과 운명을 같이해나가야 합니다.》

패전도 뒤졌다다는 드높은 포부와 열정에 넘쳐 불멸의 위훈으로 대교조전투를 빛내어나가는 청년영웅으로 되게 하였다.

장엄한 대교조전투에서 빠른 시일에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높일수 있는 길이 확고히 열려진 지금 우리 청년들에 대한 당의 기대와 믿음은 대단히 크다.

우리는 청년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전선에서 선군청년전위의 위력을 다시한번 남김없이 펼쳐나갈 것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리용철

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생산된 전력의 최대한 효과를 이용되도록 하였다.

올해공동사설에서는 우리 일군들이 전방목표를 높이 세우고 방법론있게 모든것을 작전하여 자기 단위의 사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성에서는 전력설비들의 현대화계획을 단계별로 면밀하게 세우고 우리의 힘과 기술에 튼튼히 의지하여 줄기차게 밀고나감으로써 발전능력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리었다.

전력공업성 부상 김 만 수

경제건설전반에서 대고조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최첨단돌파전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는 것이다. (공동사설에서)

최첨단돌파의 기상 나래 친다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국가과학원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이 올해의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이 땅위에 거머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할 2012년을 눈앞에 둔 올해의 총공격전의 승리를 위하여 새해에도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해나갈 비상한 혁명적열정으로 온 과학자수가 세계를 들끓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당의 품속에서 키워온 창조적열기 지혜와 재능을 가장 높이 떨쳐야 할 때입니다.》

새해공동사설에는 경제건설전반에서 대고조진군속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최첨단돌파전을 계속 심화시켜나가는 것이라고 지적되어있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가 도달한 과학기술수준을 최단기간에 뛰어넘어 지식경제시대의 전열에 선데 대한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 강성대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서 국가과학원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지닌 사명감과 임무는 매우 무겁고도 책임적이며 영예로운것이다.

추후도 어길수 없는 당의 강령과 같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고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기념할 민족의 최성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여 할 해기에 이들은 올해 공동사설을 그 어느때보다 엄숙히 받아안았다.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과학자들과 종업원들을 비롯하여 과학자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일군들의 조직정치사상이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국가과학원의 일군들은 새해 첫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경공업과학원 원과 철도과학원, 수산과학원, 자동차과학연구소, 조종기체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내려가 과학자들과 일군들의 속도와 요구를 알려주면서 그 관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로해하고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기동성있게 진행하였다.

지금 과학자수는 어느때없는 정당한 분위기에 휩싸여있다.

새해공동사설의 힌수를 더욱 깊게 파악하기 위해 자자구구 새겨가며 파고드는 일군들의 사무실들과 시작부터 연구사업을 다그치는 과학자들의 연구실, 실험실들이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의 긴장한 순간순간이 흐르고있다.

그와 더불어 올해에도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은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려 거창한 인민생

활상대진군에 새로운 박자를 하기 위한 작전일군들이 실속있게 완성되고 귀중한 연구결과들이 앞차게 무르익고있다.

인민생활향상과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투쟁을 과학기술적으로 힘있게 추동하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획기적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국가과학원적인 수십건의 중점대상과 도달목표들이 설정되어있다.

각 부서들에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과 과학기술 경쟁에서 남들을 압도하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최첨단돌파의 포성으로 적들의 과학기술적 봉쇄를 짓밟아버리겠다는 자신만만한 배짱으로 대상과목들의 목표를 보다 높이 세우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이고있다.

새해공동사설을 받들고 이미 많은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념을 꽃피우기 위한 전면공작, 전면돌파전에 나서고 있다.

화학공업과학부에서는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지지방도에서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인 경공업에 필요한 원료, 자재공급을 주체화, 국산화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러 분원,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리오셀생유생산공정

을 확립하고 흉남의 비료생산에서 요구되는 촉매를 국산화하며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목표를 탄탄히 달성하기 위해 전투에 달려나갔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투쟁은 생물과학부의 과학자들과에서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즐거세포기술, 세포배양기술 등 첨단생물공학기술을 적극 개발도입하고 나뭇사파나무접근구를 대량 증식하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널리 퍼지고 식용나무의 다수확과 품질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대상과목행에 지혜와 열정을 다하고 있다.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은 기초정보과학부에서도 세차게 타고 있다. 이 부문의 과학자들은 남들이 못한다는것도 거어 해내고자하는 불굴의 기지로 객체적합성기술과 황해계열 연방기술, 순환화학공업소를 비롯한 여러 대상들의 CNC화설정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화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과 공작기계CNC화처리가 자동화되고 및 기구, 여러가지 전자재료와 전자요소 등 첨단제품생산기술들을 훌륭히 구하고 온을 내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뿐이 아니다. 현재 국가과학원에서는 책임일군들의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투쟁기풍과 일 본색에 의해 지난해에 자체의

발도입, 고품위핵연정광생산공정확립 그리고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생산을 높이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에서 주체적용광로의 기술경제지표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적의 거 큰 대상과제수행에 큰 힘을 쏟고있다.

건설운수과학부 과학자들은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새로운 건설공법들을 적극 도입하며 이음대상은 철길구간을 더욱 높이고 철도수송총관리체제를 확립하는 등 운수부문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하여 피라는 사색과 탐구를 바쳐가고있다.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은 기초정보과학부에서도 세차게 타고 있다. 이 부문의 과학자들은 남들이 못한다는것도 거어 해내고자하는 불굴의 기지로 객체적합성기술과 황해계열 연방기술, 순환화학공업소를 비롯한 여러 대상들의 CNC화설정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화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과 공작기계CNC화처리가 자동화되고 및 기구, 여러가지 전자재료와 전자요소 등 첨단제품생산기술들을 훌륭히 구하고 온을 내도록 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뿐이 아니다. 현재 국가과학원에서는 책임일군들의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투쟁기풍과 일 본색에 의해 지난해에 자체의

힘으로 과학자수의 모습을 변모시키고 과학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과학자병원을 일떠세우는 데서 거둔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올해에도 과학자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얼마전 이들은 비상한 창조정신을 발휘하여 새로운 축산향생소에 대한 연구개발에 성공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 자체로 새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잘 배합하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소의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과학자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중심으로 삼고 풀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었다.

유전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푸는데 지는 힘이나마 이바지할 불라는 열의로 심장을 끓이며 추산과 가금, 양에서 먹이첨가제로 널리 쓰이고있는 축산향생소의 공업적생산을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기울였다.

이들이 연구과제로 내세운 축산향생소는 동물유전자에 대한 저항성을 일으키지 않고 체내축적 없이 항생제 인자로 하여 먹이첨가제로 많이 쓰이고있는 항생소이다. 특히 이 축산향생소는 사회적

의 흡수능력을 강화하여 먹이의 리용률을 높이고 병원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며 집짐승의 증체를 높인다.

연구집단은 이러한 축산향생소의 공업적생산을 진행할 높은 목표밑에 군주의 육종과 품종개량 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탄탄히 해결하였다.

과학자들은 이 분야의 활동을 높이 위해 최근년간에 이룩된 연구성과에 대한 문헌자료들을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첨단수준을 돌파할 기세로 높은 기발한 착상들을 내놓고 육종연구사업을 벌였다. 그 과정에 출발준비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고 고갈성군주를 얻어냈고 군주의 보존관리체계도 세워놓았다. 또한 새로운 축산향생소의 생산을 공업화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었다.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축산향생소가 집짐승의 질병예방과 성장촉진에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실제 현실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연한군을 비롯한 여러곳에 나가 사양시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다른 향생소보다 값고 경제적이고 성장촉진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푸는데 창조적 구상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의 흡수능력을 강화하여 먹이의 리용률을 높이고 병원성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며 집짐승의 증체를 높인다.

연구집단은 이러한 축산향생소의 공업적생산을 진행할 높은 목표밑에 군주의 육종과 품종개량 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탄탄히 해결하였다.

과학자들은 이 분야의 활동을 높이 위해 최근년간에 이룩된 연구성과에 대한 문헌자료들을 종합분석한데 기초하여 첨단수준을 돌파할 기세로 높은 기발한 착상들을 내놓고 육종연구사업을 벌였다. 그 과정에 출발준비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고 고갈성군주를 얻어냈고 군주의 보존관리체계도 세워놓았다. 또한 새로운 축산향생소의 생산을 공업화할수 있는 기술적문제들을 풀었다.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축산향생소가 집짐승의 질병예방과 성장촉진에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실제 현실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연한군을 비롯한 여러곳에 나가 사양시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다른 향생소보다 값고 경제적이고 성장촉진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푸는데 창조적 구상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려명희

공동사설의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우리 경제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경제건설전반에서 최첨단돌파전을 계속 심화시켜나갈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는 철도전기화연구소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심장마다 세찬 불길을 지펴주고있다.

인민경제건설행부의 하나인 철도운수부문의 운영상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차지하고있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언제나 깊이 자각하고있는 소장 장천진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자세와 힘장부리가 혁신적이다.

연구소의 일군들은 실천경험이 많은 유능한 과학자들과 새세대 젊은 과학자들을 잘 배합하여 과학자사업에 조직동원

하는것을 하나의 사업원칙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집행해나가고 있다.

양육, 윤철, 최봉철, 조근영, 김철동무를 비롯한 유능한 과학자들이 가지고있는 로속한 실천경험과 능력, 조국의 큰 짐도 모두 걸머지고 최첨단의 배려도 다 쫓겠다는 젊은 과학자들의 배짱과 단력, 불굴의 열정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높은 실력은 하나로 잘 융화되어 과학연구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과학자들은 철차들의 정성운영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는 천정안장구조를 새롭게 개조하고 견인전동기의 절연상태를 관정하여 반복수리공정을 없애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과학기술적문제의 완성이 아니다.

그것은 총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반적수송수요보장에 확고한 담보를 주는 든든한 기술적기둥을 닦아놓는 것으로 된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였는가.

—현재 철도현대화에서 절실한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쪽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늘 마주앉아 사색하고 토의하는 문제이다.

그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난해에 이룩된 과학연구성과를 현장에 직접 도입하기 위한 전투적업무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과학연구사업에서 획기적진전을 가져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구체적으로 작성된 세밀한 사업계획에 따라 여러 철도구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

한 생산현장들에 파견된 과학자들이 새해 첫기둥부터 과학연구사업에서 첫발을 올리려고 있다.

과학자들은 현장기술자, 로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여러가지 자동조종장치를 새롭게 만들어 도입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현장일군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과학자들은 이와 함께 흉남 지구 등에 있는 하부구조물들의 전기에 의한 삭음상태를 측정하고 보호대책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도 진행하고있다.

새해공동사설의 호소를 피뎠는 심장으로 점수한 철도전기화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올해에도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학연구성과들을 내세우며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을 힘차게 일으켜나갈것이다.

본사기자 김경철

를 모르는 과학자들은 간직의 소금기를 없애는데 쓰이는 민물의 양을 더욱 줄이면서 전기를 극력 절약하게 하는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내세운 목표도 높고 해야 할 일터도 많다.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감한 공적기질과 창조정신을 비상히 발휘하여 올해의 총공격의 열기를 한껏 도는데 이룩한 일군들과 과학자들이다.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히 벌려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더 많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최첨단을 돌파하라!

이런 굳은 결의밑에 담보로 모르고 오직 믿음과 내달리는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참으로 기대된다.

본사기자

를 모르는 과학자들은 간직의 소금기를 없애는데 쓰이는 민물의 양을 더욱 줄이면서 전기를 극력 절약하게 하는 연구사업을 활발히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내세운 목표도 높고 해야 할 일터도 많다.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감한 공적기질과 창조정신을 비상히 발휘하여 올해의 총공격의 열기를 한껏 도는데 이룩한 일군들과 과학자들이다.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히 벌려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더 많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보는 넓고 혁신적인 안목으로 최첨단을 돌파하라!

이런 굳은 결의밑에 담보로 모르고 오직 믿음과 내달리는 일군들과 과학자들의 연구성과가 참으로 기대된다.

본사기자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도서들을 독자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인민대학습당에서— 본사기자 전성남 찍음

위생방역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분덕군 위생방역소에서

소장 박경식, 과장 김광호, 의사 안재환동무를 비롯한 방역소의 일군들은 군안의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인민반들이 나가 위생선진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리면서 생활문화, 생활문화확립을 위한 틈바람을 일으켜가고있다.

방역소에서는 또한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는 신형독감을 미리막기 위한 위생선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겨울철유해곤충박멸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군안의 여러곳에 감시지점들을 설정하고 곤충방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

만년대계의 창조물에 바쳐가는 애국의 열정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동원된 남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 로동자들

혼합기를 가동시켜보았으나 실정에 잘 맞지 않았던것이다.

—전국도처에 수많은 발전소들이 일떠세우는데 사람이 있어야 마땅하고, 사람이 없으면 못해낼 일이 있겠는가.

그들은 이런 배짱을 가지고 혼합기를 개조하였다.

남새까지 얻어 돌덩이처럼 떨어진다든 후한속에서 용접기를 쥔 손이 피아들어도 로동자들은 전투정신을 떠나지 않았다. 화도불에 언 손을 녹이고 불들로 언 발을 덮히면서 그들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직장장, 작업반장들과 로동자들간에는 자주 심경이질이 벌어졌다. 로동자들이 그 추운 속에서도 용접기를 쥔채로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단편극의 정성과 동지애의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속에 마침내 혼합기는 훌륭히 개조되었다.

그 혼합기를 혼합장에 끌어올리자고보니 기중기로는 불가능하였다.

공리하던 끝에 이들은 대단하게 쇠바줄을 혼합기에 걸고 언양기를 뚫었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서수수기속에 서로가 뜨거운 눈빛으로 고무해두며 언양기를 둘러싼 사람들, 이들이 어찌 천하의 나날 락원의 다른 발전소건설장에서 가져온

것을 가동시켜보았으나 실정에 잘 맞지 않았던것이다.

—전국도처에 수많은 발전소들이 일떠세우는데 사람이 있어야 마땅하고, 사람이 없으면 못해낼 일이 있겠는가.

그들은 이런 배짱을 가지고 혼합기를 개조하였다.

남새까지 얻어 돌덩이처럼 떨어진다든 후한속에서 용접기를 쥔 손이 피아들어도 로동자들은 전투정신을 떠나지 않았다. 화도불에 언 손을 녹이고 불들로 언 발을 덮히면서 그들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직장장, 작업반장들과 로동자들간에는 자주 심경이질이 벌어졌다. 로동자들이 그 추운 속에서도 용접기를 쥔채로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단편극의 정성과 동지애의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속에 마침내 혼합기는 훌륭히 개조되었다.

그 혼합기를 혼합장에 끌어올리자고보니 기중기로는 불가능하였다.

공리하던 끝에 이들은 대단하게 쇠바줄을 혼합기에 걸고 언양기를 뚫었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서수수기속에 서로가 뜨거운 눈빛으로 고무해두며 언양기를 둘러싼 사람들, 이들이 어찌 천하의 나날 락원의 다른 발전소건설장에서 가져온

것을 가동시켜보았으나 실정에 잘 맞지 않았던것이다.

—전국도처에 수많은 발전소들이 일떠세우는데 사람이 있어야 마땅하고, 사람이 없으면 못해낼 일이 있겠는가.

그들은 이런 배짱을 가지고 혼합기를 개조하였다.

남새까지 얻어 돌덩이처럼 떨어진다든 후한속에서 용접기를 쥔 손이 피아들어도 로동자들은 전투정신을 떠나지 않았다. 화도불에 언 손을 녹이고 불들로 언 발을 덮히면서 그들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직장장, 작업반장들과 로동자들간에는 자주 심경이질이 벌어졌다. 로동자들이 그 추운 속에서도 용접기를 쥔채로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단편극의 정성과 동지애의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속에 마침내 혼합기는 훌륭히 개조되었다.

그 혼합기를 혼합장에 끌어올리자고보니 기중기로는 불가능하였다.

공리하던 끝에 이들은 대단하게 쇠바줄을 혼합기에 걸고 언양기를 뚫었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서수수기속에 서로가 뜨거운 눈빛으로 고무해두며 언양기를 둘러싼 사람들, 이들이 어찌 천하의 나날 락원의 다른 발전소건설장에서 가져온

것을 가동시켜보았으나 실정에 잘 맞지 않았던것이다.

—전국도처에 수많은 발전소들이 일떠세우는데 사람이 있어야 마땅하고, 사람이 없으면 못해낼 일이 있겠는가.

그들은 이런 배짱을 가지고 혼합기를 개조하였다.

남새까지 얻어 돌덩이처럼 떨어진다든 후한속에서 용접기를 쥔 손이 피아들어도 로동자들은 전투정신을 떠나지 않았다. 화도불에 언 손을 녹이고 불들로 언 발을 덮히면서 그들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직장장, 작업반장들과 로동자들간에는 자주 심경이질이 벌어졌다. 로동자들이 그 추운 속에서도 용접기를 쥔채로 놓여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단편극의 정성과 동지애의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속에 마침내 혼합기는 훌륭히 개조되었다.

그 혼합기를 혼합장에 끌어올리자고보니 기중기로는 불가능하였다.

공리하던 끝에 이들은 대단하게 쇠바줄을 혼합기에 걸고 언양기를 뚫었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서수수기속에 서로가 뜨거운 눈빛으로 고무해두며 언양기를 둘러싼 사람들, 이들이 어찌 천하의 나날 락원의 다른 발전소건설장에서 가져온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자

높이 들고나가야 할 힘찬 애국의 구호

21세기의 새로운 100년대에 들어선 오늘 전체 조선민족을 자주통일에 부르짖는 애국의 구호가 발포되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당보, 군보, 청년보의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이 전투적구호는 우리 겨레모두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사적 사명감을 더해주며 애국애족의 한결같은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새해공동사설의 구호에 걸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신심과 락관에 넘쳐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올해에 거이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 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이며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지향입니다.>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구호는 조국통일의 주제인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과 그에 의해 개척된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담겨져있다. 민족애명개척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자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가야 한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주제적역량은 더욱 강화되었다. 6.15민족공동유언회와 범민련을 비롯한 북과 남, 해외 3자의 연대연합이 강화되어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에서 귀중한 경험과 토대를 마련하였다. 자주통일을 앞당뜨는것이 어떻게 되든 못하는것은 우리 민족이 어떤

게 단합하여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조국통일의 주제인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것을 전체 조선민족에게 호소한것이다. <당보, 군보, 청년보의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구호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자주통일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통일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통일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분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새해공동사설의 구호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애국애족의 구호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서 가장 절박하게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다. 조국을 통일하는것이다. 20세기 중엽에 외세의 강요로 생겨난 민족의 분열이 세기를 이어 60여년이나 지속되고있는것은 세계에 오직 하나 우리 민족밖에 없다. 분열된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은 가로막고있으며 온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곧 애국애족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그 누구도 회피할수 없는 참다운 애국애족투쟁이다. 지난해 안락의 분별주의세력의 책동이 이처럼 악랄하였지만 겨레의 통일지향을 꺾을수 없었다. 겨레의 심장속에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자리잡고있으며 한중도 못되는 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은 민족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면치 못하였다. 시련과 난관이 겹잡일수록 더욱 높아가는 겨레의 자주통일기운

은 북남관계를 악화시켜온 통족대결정책이 파산되고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이 승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실은 온 겨레로 하여금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단부서버리기 위한 견결한 투쟁을 더욱 파강히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여기에 공동사설의 구호가 가지는 애국애족적인 생명력이 있다. 새해공동사설의 구호는 올해 조국통일 운동의 총적방향을 명백하게 밝히고있다. 올해 우리 민족앞에 나선 기본임무는 자주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가는것이다. 6.15이전의 대결시대로 돌아간다는것은 6.15통일시대의 고귀한 진취물을 모두 부정하고 통족대결과 전쟁으로 나아가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으로 하여 차폐적이란 책략화박에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새해공동사설에서는 민족중시의 립장, 자주통일의 립장을 설것을 온 민족에게 호소하였다. 오늘 민족의 운명과 자주통일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민족자주와 외세의 존, 통일애국과 애국배격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진정으로 민족을 위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북남대결과 체제통일을 추구할 리유와 조건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개인이나 개별적계급, 계층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을 찾지리여 놓고 자주통일을 위해 힘과 지혜,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는 여기에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승패가 달려있다. 새해공동사설의 구호는 온 겨레를

자주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부르짖고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해줄수 없다. 조국통일의 새 아기를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주체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이며 온 민족의 단결에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민족끼리정신으로 굳게 단결할 때에만 조국통일의 주체가 강화되고 그 위력도 비상히 높아진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벌려나갈 때 자주통일의 대문은 반드시 열리고야말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때 대한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구호는 올해에 우리 겨레모두가 통일애국의 길에 자기의 두말한 자욕을 남기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투쟁목표도 명백하며 겨레의 투쟁의 지 또한 굳다. 전체 조선민족은 공동사설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새해부터부터 통일애국의 발걸음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로 빛나게 장식해야 할것이다. 최 철 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었다. 새해공동사설은 21세기의 새로운 100년대를 민족의 번영과 민족의 단결을 위한 투쟁의 해로 규정하였다. 지금 온 겨레는 새해공동사설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을 괴롭혀온 불신과 대결의 어두운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으로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펼쳐나갈 확고한 신심과 의지로 가슴벅벅하고있다. 가슴벅벅한 의욕과 열의가 넘쳐있는 우리 민족은 분별주의세력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키었다. 우리 겨레는 겉잡이할수없는 시련속에서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발표 10년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30돐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저주로운 분별의 콩크리트장벽이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르고있고 호전광풍의 무분별한 대결강등으로 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드리워져있었지만 겨레의 마음과 마음은 통일이 라는 오직 하나의 날ын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이어져왔다. 겨레의 이 강렬한 통일열원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통일의 길은 여전히 순탄치 않다. 반세기이상 굳어진 통일이

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외세의 강요로 인한 착취한 전쟁의 재난, 기약없는 리벨속에서 홀린 겨레의 피눈물... 다치면 터질듯 한 항시적인 군사적긴장상태로 헛터이 소모된 민족의 힘은 또 그 얼마였던가. 이것은 돌이 되면 안될 하나가 외에에 의해 만도질당할때에 빚어진 력사의 비극이었다. 하기에 누구나 회망과 기대안고 맞이하는 새해의 첫아침에도 또 한달의 분별의 년분이 새겨진다는 가슴저는 아픔으로 눈마음속에서 그늘을 안고 살아온 우리 겨레가 아닌가. 적막하고 침침한 분별의 기나긴 겨울밤이 물러가고 환희와 격정속에 동력을 통일의 그 아침을 펼쳐나갈 원대한 우리 겨레기기에 자주통일의지는 더욱 강렬한것이다. 지난해의 조국통일운동을 돌이켜보아도 그렇다. 지난해 우리 민족은 분별주의세력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키었다. 우리 겨레는 겉잡이할수없는 시련속에서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발표 10년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30돐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저주로운 분별의 콩크리트장벽이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르고있고 호전광풍의 무분별한 대결강등으로 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드리워져있었지만 겨레의 마음과 마음은 통일이 라는 오직 하나의 날ын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이어져왔다. 겨레의 이 강렬한 통일열원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통일의 길은 여전히 순탄치 않다. 반세기이상 굳어진 통일이

의 장에돌이 여전히 도사리고있고 분별주의세력의 악랄한 반통일대결책동이 민족의 앞길을 끈질기게 가로막고있다.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달려온 통일기판차들 질풍같이 몰아갈 겨레의 신심은 굳건하다. 통일운동의 승리는 조국통일을 절필히 바라는 우리 겨레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주제적 통일력량을 흔쾌히 마련하는데 있다. 민족적화해와 협력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민족성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상인 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분별의 통일대강으로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애국애족의 숭고한 덕망으로 겨레의 심장을 하나로 이어주시기에 민족자주통일의 밝은 미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세차지고있다. 그 도도한 대하는 통일만세의 환호소리 강산을 건갈할 력사의 그날까지 계속 줄기차게 넘을것이며 겨레의 슬기와 지혜, 풍부한 자연부원과 거대한 경제잠재력이 하나로 합쳐져 무장번영할 통일강대국이 반드시 건설될것이다. 새해의 통일대행진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겨레는 거이 하나된 힘으로 통일대강의 밝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갈것이다. 주제 100 (2011)년 새해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통일번영할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촉박추고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내외호전세력의 도발적인 긴장화책동이 날로 우세해지고 있는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격사건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으로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갈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북남공동선언에서 밝힌 조국통일의 기본리념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며 이것은 철저한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적단합의 리념입니다.> 북과 남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자는 6.15공동선언의 기본요구이다. 민족내부문제인 조국통일문제를 내외에게 맡겨둘수 없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온 겨레가 함께 해야 할 중요한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보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반통일대결정책의 철폐와 민족의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것은 북남간인민들을 리행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터득하였기때문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자주와 단합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며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나갈 때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깊이 새겨안고 자주통일의 길에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무력으로 해지기 위해 군사적도발과 불순한 모략책동에 계속 방황적으로 매달리고있다. 피피병대의 이러한 무분별한 망동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면전쟁의 위기에로 더욱 바짝 몰아가고있다. 현실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애국력량이 단결하여 평화수호선언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진민적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평화적통일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리성호

행해야 할 중요한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남조선의 각계각층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보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반통일대결정책의 철폐와 민족의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것은 북남간인민들을 리행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터득하였기때문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자주와 단합만이 우리 민족의 살길이며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과 지혜를 합쳐나갈 때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깊이 새겨안고 자주통일의 길에 힘차게 전진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은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무력으로 해지기 위해 군사적도발과 불순한 모략책동에 계속 방황적으로 매달리고있다. 피피병대의 이러한 무분별한 망동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면전쟁의 위기에로 더욱 바짝 몰아가고있다. 현실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애국력량이 단결하여 평화수호선언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진민적투쟁을 더욱 강력히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평화적통일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애국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한다. 본사기자 리성호

21세기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었다. 당보, 군보, 청년보의 새해공동사설은 해외의 온 겨레를 애국애족의 한결같은 떨쳐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새해공동사설의 구호는 올해 조국통일 운동의 총적방향을 명백하게 밝히고있다. 올해 우리 민족앞에 나선 기본임무는 자주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가는것이다. 6.15이전의 대결시대로 돌아간다는것은 6.15통일시대의 고귀한 진취물을 모두 부정하고 통족대결과 전쟁으로 나아가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으로 하여 차폐적이란 책략화박에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새해공동사설에서는 민족중시의 립장, 자주통일의 립장을 설것을 온 민족에게 호소하였다. 오늘 민족의 운명과 자주통일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민족자주와 외세의 존, 통일애국과 애국배격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진정으로 민족을 위하고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북남대결과 체제통일을 추구할 리유와 조건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개인이나 개별적계급, 계층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을 찾지리여 놓고 자주통일을 위해 힘과 지혜,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는 여기에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승패가 달려있다. 새해공동사설의 구호는 온 겨레를

자주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으로 부르짖고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해줄수 없다. 조국통일의 새 아기를 이끌어올 원동력은 우리 민족의 지혜와 의지이며 힘이다. 주체의 위력은 단결의 위력이며 온 민족의 단결에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민족끼리정신으로 굳게 단결할 때에만 조국통일의 주체가 강화되고 그 위력도 비상히 높아진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이 북남공동선언과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벌려나갈 때 자주통일의 대문은 반드시 열리고야말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때 대한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구호는 올해에 우리 겨레모두가 통일애국의 길에 자기의 두말한 자욕을 남기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투쟁목표도 명백하며 겨레의 투쟁의 지 또한 굳다. 전체 조선민족은 공동사설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새해부터부터 통일애국의 발걸음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전환의 해로 빛나게 장식해야 할것이다. 최 철 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있으며 전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었다. 새해공동사설은 21세기의 새로운 100년대를 민족의 번영과 민족의 단결을 위한 투쟁의 해로 규정하였다. 지금 온 겨레는 새해공동사설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을 괴롭혀온 불신과 대결의 어두운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으로 조국통일의 밝은 앞날을 펼쳐나갈 확고한 신심과 의지로 가슴벅벅하고있다. 가슴벅벅한 의욕과 열의가 넘쳐있는 우리 민족은 분별주의세력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키었다. 우리 겨레는 겉잡이할수없는 시련속에서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발표 10년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30돐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저주로운 분별의 콩크리트장벽이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르고있고 호전광풍의 무분별한 대결강등으로 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드리워져있었지만 겨레의 마음과 마음은 통일이 라는 오직 하나의 날ын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이어져왔다. 겨레의 이 강렬한 통일열원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통일의 길은 여전히 순탄치 않다. 반세기이상 굳어진 통일이

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외세의 강요로 인한 착취한 전쟁의 재난, 기약없는 리벨속에서 홀린 겨레의 피눈물... 다치면 터질듯 한 항시적인 군사적긴장상태로 헛터이 소모된 민족의 힘은 또 그 얼마였던가. 이것은 돌이 되면 안될 하나가 외에에 의해 만도질당할때에 빚어진 력사의 비극이었다. 하기에 누구나 회망과 기대안고 맞이하는 새해의 첫아침에도 또 한달의 분별의 년분이 새겨진다는 가슴저는 아픔으로 눈마음속에서 그늘을 안고 살아온 우리 겨레가 아닌가. 적막하고 침침한 분별의 기나긴 겨울밤이 물러가고 환희와 격정속에 동력을 통일의 그 아침을 펼쳐나갈 원대한 우리 겨레기기에 자주통일의지는 더욱 강렬한것이다. 지난해의 조국통일운동을 돌이켜보아도 그렇다. 지난해 우리 민족은 분별주의세력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자주통일운동을 힘차게 전진시키었다. 우리 겨레는 겉잡이할수없는 시련속에서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발표 10년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30돐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망을 힘있게 파시하였다. 저주로운 분별의 콩크리트장벽이 국토의 허리를 가로지르고있고 호전광풍의 무분별한 대결강등으로 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드리워져있었지만 겨레의 마음과 마음은 통일이 라는 오직 하나의 날ын으로 언제나 한결같이 이어져왔다. 겨레의 이 강렬한 통일열원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통일의 길은 여전히 순탄치 않다. 반세기이상 굳어진 통일이

의 장에돌이 여전히 도사리고있고 분별주의세력의 악랄한 반통일대결책동이 민족의 앞길을 끈질기게 가로막고있다.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달려온 통일기판차들 질풍같이 몰아갈 겨레의 신심은 굳건하다. 통일운동의 승리는 조국통일을 절필히 바라는 우리 겨레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주제적 통일력량을 흔쾌히 마련하는데 있다. 민족적화해와 협력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민족성원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상인 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분별의 통일대강으로 겨레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애국애족의 숭고한 덕망으로 겨레의 심장을 하나로 이어주시기에 민족자주통일의 밝은 미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세차지고있다. 그 도도한 대하는 통일만세의 환호소리 강산을 건갈할 력사의 그날까지 계속 줄기차게 넘을것이며 겨레의 슬기와 지혜, 풍부한 자연부원과 거대한 경제잠재력이 하나로 합쳐져 무장번영할 통일강대국이 반드시 건설될것이다. 새해의 통일대행진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겨레는 거이 하나된 힘으로 통일대강의 밝은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갈것이다. 주제 100 (2011)년 새해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 통일번영할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촉박추고있다. 본사기자 허영민

조국에 바쳐진 삶은 영원히 빛난다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삶의 상상봉에서 온갖 영광과 행복을 다 누리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한생을 통일애국에 바친 그들모두에게 통일애국사, 영웅이라는 가장 값높고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시고 잊어갈수 없는 반백년 경이 빛나는 금메달로 수여하시었다. 어제 그들이다. 그들모두에게 가장 훌륭한 보급자리를 마련해주시었고 킨어비어사람으로 생활의 구성요소까지 보살펴주고 있다. 남조선에서 모진 억울을 치르며 옥재살아온 병동수감자들이 이제 생명의 끈을 풀고자 하는 한탄적인 애생 90째, 80째를 맞는 장호, 우용각동지들에게 은연터인 생일상을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어머니의 이 크나큰 사랑앞에 그들은 격정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다. 아, 은혜로운 장군님! 청년 비전향장기수들은 위대한 동지에게 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높은 삶을 향유하고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인자 극적인 인생 전환을 하였다. 죽을의 문이구로 반향반향 다가서던 그들이 새

고있다고, 정말 남조선에 있을 때에는 자기들의 삶이 이렇듯 빛나리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늘 외우곤 한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삶은 정녕 그 얼마나 긍지높고 빛나는 삶인가. 조국통일은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만부시며 이룩해야 할 간고한 위업이다. 이 투쟁에서 신념이 없으면 물러서게 되고 그것은 반역의 길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정세가 엄중해지자 시련이 갈수록 더욱 완강하게 벌어져야 한다. 만일 비전향장기수들에게 통일애국의 뜻을 굽히지 않았더라면 그들의 의지와 신념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오늘처럼 조국이 아는 빛나는 삶을 창조할수 없었을것이다. 민족이 당하는 분별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 신념과 지조가 없이 통일애국의 뜻을 굽히는 사람은 인간의 참된 삶을 결코 향유할수 없다. 내외민족세력의 책동이 날로 엄중해지는 오늘의 현실은 해외의 온 겨레를 조국통일을 위한 갈매같은 투쟁으로 부르짖고있다. 6.15통일시대는 우리 겨레모두에게 빛의 순간을 열어준 통일애국으로 비전향장기수들의 고귀한 삶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거울이다. 해외의 온 겨레는 누구나 새해공동사설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자신들의 삶을 빛내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뜻이요 조국통일의 사활적요구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새해공동사설에 걸친 우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성원들의 가슴속에는 한없이 격동되어있다. 반민들의 유구한 세월 한피줄을 이으며 단탄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어언 66년이 되도록 외세의 강요한 분별의 비극을 겪고있는것은 더없는 수치이며 민족사의 오점이다. 어떻게 하나 민족분열의 치욕적 역사를 끝내고 조국통일의 세기적년

원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한다는것이 바로 분별의 비극속에 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각각이며 의지이다. 새해공동사설에 천명된 조국통일투쟁의 자자구구에는 우리 민족의 이 불같은 신념과 의지가 력력히 맥박치고있다. 지금 우리들은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한다.> 라는 전투적구호를 힘있게 실천하고있다. <청년연대>와 <21세기 대학생연합>을 비롯한 청년학생단체들은 당국이 호소하는 군사적총동을 몰아낼수 있는 조치들을 철저히 하부빨리 북과 남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반전평화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대학생선원들은 조국통일의 근본원리는 남북공공선인들의 리행과 대화를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하면서 <전쟁반대, 한반도평화수호를 위한 대학생선원단>을 구성하고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밖에도 진보연대들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여러 민족공동의 리익을 좇아 대화와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원으로서의 도리와 본분을 다 하였다. 새해공동사설에 천명된바와 같이 북남공동선언은 온 겨레가 변함없이 높이 들고나가자 할 자주통일의 기치이며 민족번영의 리정표이다. 공동선언이 밝힌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데 우리 민족의 밝은 구호가 있다. 나는 이 기회에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이 새해공동사설의 호소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시한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 부장 홍성철

대결을 격화시키는 도발적망동

최근 남조선국방부가 <북의 정권과 군대는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조야바은 그 무슨 <국방백서>라는것을 발간하였다. 한편 군부호전장관들은 지난해말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 서, 남해의 23곳에서 또다시 도발적인 해상사격훈련을 강행하였다. 이로써 남조선당국은 동족을 반대하는 엄중한 군사적도발과 전쟁발장난소동으로 한해를 마감하였다. 극도에 달한 남조선당국의 악랄한 대결전쟁소동은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내외의 대대적인 악랄한 도전으로 해외의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해에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소동을 일삼으면서 북침전쟁을 도발하려고 발방하였다. 괴뢰들은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포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실로 그 무슨 <도발>과 <보복>, <응징>에 대해 요란히 떠들면서 하늘과 땅, 바다에서 편이 전쟁발장난소동을 벌려 온 남조선을 화약내로 뒤덮었다. 그것으로 더욱 부추기는 이례는 <국방백서>에 정의와 평화의 수호자인 우리의 정권과 군대를 감히 <적>으로 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그처럼 위험한 포사건을 일으킨 해상사격훈련을 년말에 또다시 강행하였다. 이것이 한피줄을 나는 동족과 무력으로 끝까지 맞서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호전광풍이 내외의 한결같은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에 우리를 <적>으로 조야바고 도발적인 해상사격훈련을 다시금 요란히 벌린것은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선언이며 골수에 배진 북침야망의 뚜렷한 발로이다.

남조선당국의 대외부정적이며 호전적인 정책이 북남관계개선과 일족합선의 초진장성태를 몰아왔다는것은 우리의 사실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조선당국의 대결자세는 날로 더욱 굳어지고있다. 군부호전장관들이 남조선 각계와 국제적으로 우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백서>에 우리를 <적>으로 조야바고, 서, 남해의 수심곳에서 광란적인 해상사격훈련을 벌린것은 그들의 대결전쟁평가 얼마나 극단적인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폭투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은 오로지 보나 내세의 요구로 보나 조선반도에서 절실히 필요하였는 대화와 평화의 분위기가이 대결전쟁소동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이 내외분을 무시하고 대결과 전쟁의 길로 계속 전진하는것은 자기의 시위가 아니라 약자의 단발미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대내외정책의 총체적질패로 심각한 집권위기에 빠진 남조선집권세력은 출로를 우리와 해외의 대결에서 찾으면서 날로 더욱 리성을 잃고 헤덕비고있다. 동족인 우리를 화해할수 없는 <적>으로 공공연히 선포하고 전쟁의 불꽃이 광풍 핏기는 해상사격훈련을 또다시 주저없이 벌려놓은것만 보아도 그들이 이미 온전한 사고력을 잃었으며 피해망상증도 극도에 달하였다는것을 직감할수 있다. 현실은 남조선호전광풍들이야말로 전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북침전쟁도 서슴치 않을 위험한 반역무리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대결과 전쟁이 위험을 앞당기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북남관계개선과 평화, 통일을 향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해나서는 반역도태들은 그 후파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조 남 수

제중조선인총련합회 성명 발표

제중조선인총련합회가 지난해 12월 30일 <불을 지그는 자들은 불에 타죽기마련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의 부추진됨에 남조선피괴군부호전장관들이 조선시해 연평도일대에서 또 다시 포사격훈련을 강행한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와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지향에 대한 도전이며 정세악화를 노린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이라고 단죄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와 야

합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행진쟁의 제단을 들뜨우려고 발악한다. <우적이며 투상적인 혼란>이라더니 뉘나 하고 있지만 그런 궤변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고 단죄를 지적하였다. 성명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은 안전에도 없이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려 부침광기를 부리는 추악한 매국노, 전쟁광신자들에게 차폐질것이란 쓰디쓴 파멸방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와 야

합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행진쟁의 제단을 들뜨우려고 발악한다. <우적이며 투상적인 혼란>이라더니 뉘나 하고 있지만 그런 궤변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고 단죄를 지적하였다. 성명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은 안전에도 없이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려 부침광기를 부리는 추악한 매국노, 전쟁광신자들에게 차폐질것이란 쓰디쓴 파멸방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와 야

합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행진쟁의 제단을 들뜨우려고 발악한다. <우적이며 투상적인 혼란>이라더니 뉘나 하고 있지만 그런 궤변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고 단죄를 지적하였다. 성명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은 안전에도 없이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려 부침광기를 부리는 추악한 매국노, 전쟁광신자들에게 차폐질것이란 쓰디쓴 파멸방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와 야

합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행진쟁의 제단을 들뜨우려고 발악한다. <우적이며 투상적인 혼란>이라더니 뉘나 하고 있지만 그런 궤변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고 단죄를 지적하였다. 성명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은 안전에도 없이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려 부침광기를 부리는 추악한 매국노, 전쟁광신자들에게 차폐질것이란 쓰디쓴 파멸방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와 야

민간인 학살만행의 진상외곡행위를 규탄

남조선의 <전쟁전후 민간인피해조사 전국유족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간인학살만행의 진상을 외곡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과거사위원회)를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단계가 지난 조선전쟁기 미군의 조종하에 감행된 피괴군과 경찰의 민간인학살만행과 관련한 과거사위원회 조종보고서를 입수한데 대해 밝혔다. 문제로 되는것은 과거사위

원이기 이 보고서에 민간인 희생자들을 <죄인세력>, <좌익세력을 도운 사람> 등으로 명기하였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학살만행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과거사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학살자들의 반인륜적범죄를 은폐시키는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대구 보고서에 죽인것은 군인과 경찰이고 희생자는 다 <좌익>이거나 그 관련자라고

합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행진쟁의 제단을 들뜨우려고 발악한다. <우적이며 투상적인 혼란>이라더니 뉘나 하고 있지만 그런 궤변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고 단죄를 지적하였다. 성명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은 안전에도 없이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려 부침광기를 부리는 추악한 매국노, 전쟁광신자들에게 차폐질것이란 쓰디쓴 파멸방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와 야

합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행진쟁의 제단을 들뜨우려고 발악한다. <우적이며 투상적인 혼란>이라더니 뉘나 하고 있지만 그런 궤변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고 단죄를 지적하였다. 성명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은 안전에도 없이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려 부침광기를 부리는 추악한 매국노, 전쟁광신자들에게 차폐질것이란 쓰디쓴 파멸방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와 야

합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행진쟁의 제단을 들뜨우려고 발악한다. <우적이며 투상적인 혼란>이라더니 뉘나 하고 있지만 그런 궤변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고 단죄를 지적하였다. 성명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안전은 안전에도 없이 미국의 옷자락에 매달려 부침광기를 부리는 추악한 매국노, 전쟁광신자들에게 차폐질것이란 쓰디쓴 파멸방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와 야

자주, 평화, 진선은 인류의 세기적범원을 반영한 정당한 리념

새해에 즈음하여 발표된 《로동신문》, 《조선인민신문》, 《청년전위》 공동사설은 자주, 평화, 진선의 리념에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을 다시금 천명하였다. 공동사설에 밝혀진 자주, 평화, 진선의 리념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대외정책리념이다. 동사설에서 자주, 평화, 진선의 리념을 명시한 것은 인류공동의 보편적인 이 리념을 대외정책에 철저히 구현하여 끝까지 관철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혁명적 의지를 뚜렷이 반영한 것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은 자주, 평화, 진선의 리념에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국제적력대성을 강화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교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인민들의 자주적투쟁과 투쟁에 의해 역사가 전진하고 발전하기마련이다. 지난 시기 대립과 대결상태에 있던 나라와 세력들이 적대관계, 대립관계를 해소하고 신뢰와 화해, 평화와 친선, 선린우호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 리념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파시되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높은 국제적위치를 지니고 세계 수많은 나라들과 친선협조,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박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는 속에서도 우리 혁명을 강화되는 속에서도 우리 혁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지지와 연대성의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위치가 비상이

높아지고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력대성이 더욱 강화된 것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친선적인 대외정책이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 자주성은 자주독립투쟁의 생명이며 기본정표이다. 자주적 투쟁을 통해, 유린하는 부당한 행위를 반대하는 자기의 정당한 목소리를 계속 힘있게 울릴것이며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평화의 대외정책리념은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민들의 평화를 반영하고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자주성을 침해, 유린하는 부당한 행위를 반대하는 자기의 정당한 목소리를 계속 힘있게 울릴것이며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평화의 대외정책리념은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민들의 평화를 반영하고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자주성을 침해, 유린하는 부당한 행위를 반대하는 자기의 정당한 목소리를 계속 힘있게 울릴것이며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것이다.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기 신념에 따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근본원칙이고 활동방식이다. 우리는 그 누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며 우리 공화국을 지배통제하려 하는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오늘 그 누구도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우리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레라 하지 못하고있으며 부당한 요구를 내리막이지 못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자주성을 침해, 유린하는 부당한 행위를 반대하는 자기의 정당한 목소리를 계속 힘있게 울릴것이며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것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평화의 대외정책리념은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인민들의 평화를 반영하고있다. 우리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자주성을 침해, 유린하는 부당한 행위를 반대하는 자기의 정당한 목소리를 계속 힘있게 울릴것이며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위해, 침해하는 내정간섭과 침략행위를 그치지 않고있다.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속에서 주권국가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에 맞서기 위한 군사적간섭과 침략행위를 그치지 않고있다.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속에서 주권국가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에 맞서기 위한 군사적간섭과 침략행위를 그치지 않고있다.

세계 도처에서 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위해, 침해하는 내정간섭과 침략행위를 그치지 않고있다.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속에서 주권국가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에 맞서기 위한 군사적간섭과 침략행위를 그치지 않고있다.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속에서 주권국가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에 맞서기 위한 군사적간섭과 침략행위를 그치지 않고있다.

미호전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대조선적대시업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그들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새로운 침략무력을 계속 투입하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우리 공화국을 거대한 전쟁연습소들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우리 공화국은 조선민족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와 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해에 선군정치 의 위력, 총대의 위력을 더욱 힘있게 파시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로 적들이 일의 시각에 기어든다 해도 무자비하게 족쳐버릴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 만일 우리 공화국이 총대를 든다면 틀어쥐지 않았더라면 제국주의자들에게 의해 이미전에 제2의 조선전쟁이 터지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히 파괴되었을 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반공화국전쟁책동이 파란되고 제2의 조선전쟁도발계획이 조물조물처럼 되는 선군의 덕이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인류의 평화리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의지와 필장은 확고부동하며 그것은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된 대외정책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발전시켜야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

리념이며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요구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발전시켜야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인민들이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발전시켜야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 세계 모든 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맺고 발전시켜야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자주성과 국제적 정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 친선협조,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지난 시기 우리의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라고 해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한다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하려는것이 우리 공화국의 립장이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 평화, 진선의 대외정책리념에는 자주적으로 평화롭게 친선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류의 념원과 리상을 실현하려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의도가 담겨져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공화국의 대외정책리념의 혁명성과 정당성, 그 승리의 필연성이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진선의 대외정책리념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조선통일운동의 변함없는 기치로 싸야 신문 의 글

로씨야신문 《로씨스키 프소플》이 지난해 12월 22일 《조선통일운동의 변함없는 기치》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글에서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조선반도본력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조선통일운동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6.15 북남공동선언체택후 조선통일운동에서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신문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의 활발히 진행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며 대하여 전하고 바로 이 날인 민족대단결의 리념은 조선민족모두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되었다고 밝혔다.

신문은 조선통일운동은 남조선보수세력의 집권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히게 되었다고 하면서 리명박집권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그 리행을 한사코 거부해나옴으로써 총계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전면차단되고 심각한 대결상황이 조성되며 대결 열거하였다.

오늘의 현실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고수하고 리명박 때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목과 대결, 영구분리를 피할수 없다면 단결에 대하여 전하고 바로 이 날인 민족대단결의 리념은 조선민족모두의 가슴속에 고이 간직되었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절에 즈음하여 영국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절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국제사상연구소,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지난해 12월 28일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38년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헌법제정을 통하여 공화국이 착취와 착취당 없는 가장 으뜸가는 사회주의 제도를 선포하였다. 헌법은 독특한 주제의 헌법으로서 조선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법적으로 담보하고 국가건설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는 혁명적인 국가이며 국가의 주인 리도자, 농민, 지식인, 본사기자

에게 있다는것을 구체화하였다. 부르조아국회의 의원들과 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은 헌법에 따라 자기 사업에 대하여 인민의 책임을 지고 인민의 신임을 잃는 경우 소환된다.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들은 헌법에 따라 복수에 대한 권리, 로동에 대한 권리,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상상할수 없는 모든 법적권리를 향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마다 12월 27일이 되면 헌법절을 경축하고있다. 본사기자

보다 훌륭한 미래를 위해 단결하여 투쟁하자 아프리카나 국가수반들 신년사한에서 강조

【평양 1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아프리카나 국가수반들이 새해 2011년을 맞으며 신년사한을 발표하였다. 앙골라대통령 주제 에두아르두 두스 산투스는 서한에서 지난해 정부와 인민이 세계적 인 경제공황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데 대해 밝히고 새해에 전체 인민이 보다 훌륭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단결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경제회복을 위한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실현해나감에 따라 나라의 정치체제를 공고해나감 정부와 인민이 단결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생활수준을 더욱 높이며 그들이 경제발전의 실질적인 덕을 볼수 있도록 하는것이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전력공급, 하부구조건설, 교육, 보건사업과 일자리조성사업을 강화하며 청년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힘을 낼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케니아대통령 무와이 키바키는 주민들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왔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높은 경제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청년들의 위업을 높이는데 선진적인 판심을 들릴것이며 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사회안정성을 강화해나갈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부룬디대통령 베르테 무룬지지는 새 세대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 그들이 부리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인구조성을 해결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정부의 주요과업으로 제시하였다. 남아프리카대통령 야코프 겐데 레이올메키스 주마는 2010년은 자기 나라가 국제축구연맹 월드컵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의의있는 해였다고 하면서 세대에 나라의 경제장성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인민이 힘을 합쳐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난

브라질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7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현 미행정부가 집권후 지금까지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고 까맣했다. 미국은 지역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제국의 행세를 하려 하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빈공정산투쟁에 펼쳐나설것을 호소

미국인들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반대

미국인들속에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CNN TV방송이 발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3%가 당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대해 반대립장을 표시하였다.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은 만마독립 63돐이 되는 날이다. 만나는 동남아시아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만나는 11세기에 관한 왕조를 세워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1885년에 만나는 영국의 식민지로 완전히 전락되었다. 1886년에 영국령인디아의 한계 주에 편입되어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며 1937년에 인디아에서 벗어나 영국총독이 통치하는 준주지령으로 되었다. 1945년에 일제가 패망하자 영계국주의자들은 도다시 만마를 정복하였다. 1948년 1월 4일 만나는 영연방에서 벗어나 완전한 독립국가로 되었다.

경제 건설 성과

고속도로 건설 중국에서 지난 5년동안 3만 3000km의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고속도로총길이는 7만 4000km로 늘어났다. 나라에서는 고속도로건설공사를 계속 다그쳐 2015년까지 그 길이를 10만km에 이르게 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공업생산, 수출 증가 인디아에서 지난해 10월에 공업생산이 그 전해 같은 달에 비해 10.8% 증가하였다. 최근 이 나라 중앙통계기구가 이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인디아에서 지난해 11월에 수출액이 그 전월에 비해 26.8% 증가하였다. 최근 이 나라 정부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경제 건설 성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지역 나라들에서 지난해 경제가 평균 6% 성장하였다. 특히 베리바이, 우루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이 기록되었다. 최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경제위원회가 이에 대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팔레스티나 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압한행

이스라엘군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압한행을 계속 달라고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의 북부해안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헤브론에서

자연 피해

바나마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피해를 입었다. 큰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2500여명의 살림집이 파손되었으며 2720명의 주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 또한 도로들이 파괴되어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조선중앙통신】

전염병으로 인명 피해

—수리아에서 최근 A(H1N1)형 돌림감기로 인명 피해가 컸다. 지난해 12월 15일 이 나라 보건부는 3명의 신형 돌림감환자가 새로 발생하였으며 그중 1명이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본사기자

온갖 사회악이 성행하는 자본주의세계

작어빠진 자본주의세계에서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것이 바로 사회악의 끊임없는 악순환이다. 사회악으로 한해가 시작되고 사회악속에 한해가 저무는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지난해에도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 실업위기와 빈곤, 사회적부정사가 날로 심화되어 부패한 자본주의세계의 진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보였다. 더욱 짙어가는 공포와 불안

검찰수업 없는 생활처지는 생활처지

9월에 비해 65만 6000명 더 늘어나 2310만 9000명에 달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위기가 격화되는 가운데 생계비까지 대폭 뛰어들어 가뜩이나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악화시켰다. 미국에서 지난해 2.4분기에 살림집평균가격이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도 인상이되었다. 결과 제 집을 쓰고살 여유조차 내지 못하고 한에서 사는 가정들이 날로 늘어났다. 지난해 10월에 이 나라에서 도매가격은 그 전해 같은 달보다 4.3% 올랐다. 같은 기간에 일본에서도 도매 가격이 0.9%도 인상이되었다.

무질서와 혼란

지난해 11월 중순 프랑스 디종의 한 주민구역에서 뜻밖에도 번저우체로 7명이 죽고 13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북극산동이 벌어졌다. 이보다 앞서 11월초에는 영국의 만체스터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이 심한 부상을 입고 여러 건물들이 파손되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에 화재사고와 폭발사고가 계속 일어나 약 70명의 사상자가 나고 막대한 물질적피해가 초래되었다. 지난해 자본주의세계에 펼쳐진 이러한 현실은 썩고 병든 사회제도나 번저우체 필연적인 산물로서 이런 사회악발로 전과가 없고 멸망에 가까워가는 사회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행이와 규탄을 자아낸 《애국적력》

말년전 일본 오기나와현 미야코섬에 미군 수송기가 날아들었다. 도처에 미군사기기가 거미줄같이 널려있고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미군용기들이 뺨질나게 드나드는 오기나와에서 이런 일은 폐사로운것이다. 하지만 성격은 달랐다. 미군수송기를 타고 미해군음악대가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미야코섬에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연주회를 열었으며 미국식을 악과 함께 오기나와에 오도록 공연되내에 올랐다. 미해군음악대가 주일 미군법위를 벗어나 일본인들을 상대로 공연을 열어 연주회를 벌인것은 미군용기들의 리착 특곡시에 출한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있는 오기나와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미해군음악대의 이번 연주회에 앞서 일본해연에서 화악대공연은 사상 최대규모의 미일 합동공연이 열렸다. 이 연주에는 《자유대》에서 3만 4000명의 병력과 40척의 함선, 250대의 비행기, 미군에서 1만여명의 병력과 항공모함을 포함한 각종 합선 20척, 150대의

비행기가 동원되어 란도미싸일의 함자와 추격, 요격을 위한 협동작전, 공군지원 및 수색작전 등이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감행되었다. 미해항공모함을 위수로 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이르는 총포성에 일본주민들은 물론 세계 전쟁의 시름을 듣는듯싶었다. 왜 그렇게 않았는가.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공모도 말미암아 다치면 리질될 한 초진장상태가 조성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승어가 튀니 망둥이도 편다는 격으로 일본호전장들까지 덩달아 나서서 오기나와의 그 무서운 화악대공연과 《연대성》파시를 운운하며 상전과 위협만한 불장난을 벌림으로써 지역정세를 폭발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운 일본땅에서 그 주변인 미군이 일본인요로 뉘오 허미 일본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주회를 벌였으니 그야말로 가판이다. 미군이 일본주민들과의 《교류강화》의 미명하에 벌려놓은 《음악의교》 놀음에는 음흉한 목적이 깔려있다. 그것은 《음악의교》를 통해 후면미미군기 지원의이성을 요구하는 오기나와의 민심을 달래고 그들의 반미기운을 누착한 저들의 리숙을 황기려는 미국의 잔포로부터 출할것이다. 오래전에 일미사이의 합의된 후면미미군기지원문제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것은 주요하게 오기나와의 민심때문이다. 미국은 이 문제로 하여 몹시 골머리를 앓고있다. 주일미군기와 미군을 배척하는 일본의 민심을 둘러싸우려는것은 아시아지배전략을 실현하려고 모지름을 쓰는 미국에 있어서 필수적인 문제이다. 때문에 미군은 날로 커가는 일본민심의 주일미군기지원책기를 유야무야해버리고 일본주민들과의 《교류》에 힘을 넣는다. 어쩌다 학교 부상을 꾸고있었다. 미해군음악대의 이번 연주회도 그러한 맥락에서 연출된것이다. 그야말로 낮간저로서 《음악의교》라고 하지 않을수 없는 일종의 희극이다. 하지만 구부러진 나무는 그림자도 굽는 법이다. 침략과 략탈을 업으로 삼고있는 미군의 괴물은 손에서 연우되는 신물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판중들의 감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할것은 뻔한 리치이다. 일본사람들이 미해군음악대의 이번 연주회를 두고 그것이 군사적목적리용에로 이어진다고 반발하며 항의운동을 벌린것은 우연치않았다. 그 반대로 미국의 낫간저로서 《음악의교》 놀음이 오기나와현민들을 비롯한 일본인민들속에서 손을 내지 못할것은 의심할바 없다. 본사기자 배금희

구단한 개인리주주의에 기초하고있으며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살 인민보리는 만장적인 사회악으로 되고있다. 특히 지난해에도 이런 성행한 후기유물론은 미국사회의 말제기적인 증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러스 베가스시에서의 류렬적인 흥격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총기류범파가 전국적범위로 확대되는 속에 지난해 6월 시카고시에서는 련속 3일동안에 무려 11차례의 살인행위가 감행되어 어린이를 포함한 40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졌다. 지난해 상반년에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레스에서만도 총기류범파사건은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7.1% 증대되어 706건에 달하였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격렬하면 사람들을 총으로 쏘아놓는 형식적인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였다.

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11월초에는 프랑스의 서부지역에서 정체불명의 범죄자가 총에 맞아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총질도 모자라 일본의 히로시마시에서는 32살 난 녀성이 2명의 자기 어린 자식의 목을 졸라죽였다는 하던 도표에서는 한 대학졸업생이 자기 목을 베우려는 생명을 불모로 마구 썰러 살해한것을 비롯하여 인간으로서의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살인범죄들이 연이어 감행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갈수록 암담해

9월에 비해 65만 6000명 더 늘어나 2310만 9000명에 달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업위기가 격화되는 가운데 생계비까지 대폭 뛰어들어 가뜩이나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악화시켰다. 미국에서 지난해 2.4분기에 살림집평균가격이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도 인상이되었다. 결과 제 집을 쓰고살 여유조차 내지 못하고 한에서 사는 가정들이 날로 늘어났다. 지난해 10월에 이 나라에서 도매가격은 그 전해 같은 달보다 4.3% 올랐다. 같은 기간에 일본에서도 도매 가격이 0.9%도 인상이되었다.

무질서와 혼란 지난해 11월 중순 프랑스 디종의 한 주민구역에서 뜻밖에도 번저우체로 7명이 죽고 130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북극산동이 벌어졌다. 이보다 앞서 11월초에는 영국의 만체스터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이 심한 부상을 입고 여러 건물들이 파손되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에 화재사고와 폭발사고가 계속 일어나 약 70명의 사상자가 나고 막대한 물질적피해가 초래되었다. 지난해 자본주의세계에 펼쳐진 이러한 현실은 썩고 병든 사회제도나 번저우체 필연적인 산물로서 이런 사회악발로 전과가 없고 멸망에 가까워가는 사회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